

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하루의 무게를 들고 서 있다. 누군가는 노트북 가방을, 누군가는 장바구니를, 누군가는 말없이 접어 둔 피곤을 손잡이처럼 붙잡고 간다. 나도 그중 한 사람이다. 회사에서는 업무 일정과 보고 자료, 교육 계획과 회의록을 챙기며 하루를 보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자꾸만 한 가지 생각이 따라온다. ‘나는 집에서 어떤 사람인가.’

예전에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조금 멀게 느꼈다. 뉴스나 정책, 학교 교과서나 캠페인 포스터 속에 있는 말처럼 생각했다.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말,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말, 가사와 돌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말.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하다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조금 늦게 알았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일하셨다. 집안일도 하셨고, 바깥일도 하셨다. 어릴 때 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다. 밥이 차려져 있는 것, 빨래가 개어져 있는 것, 냉장고에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 아침에 입을 셔츠가 깨끗하게 걸려 있는 것. 누군가의 시간이 매일 조금씩 사라진 자리에 내가 당연하다는 얼굴로 서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다. 어머니가 식탁 위에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 놓고 계셨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특별한 일도 아니었다. 너무 익숙한 풍경이라서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때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이번 주도 또 금방 가겠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이번 주가 금방 간다는 말 속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노동이 있었고, 토요일의 피곤이 있었고, 일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집안일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식탁 위의 반찬통이 단순한 반찬통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 안에는 장을 보고, 다듬고, 씻고, 끓이고, 식히고, 담고, 치우는 시간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너무 자주 ‘엄마가 하는 일’이라는 이름으로 작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할게요”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다. “네가 뭘 하니, 쉬어.” 그 말은 다정했지만, 동시에 오래된 습관이기도 했다. 쉬어야 할 사람과 계속 움직여도 되는 사람이 성별이나 역할에 따라 나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말했다. “돕는 게 아니라, 같이 할게요.”

그 말은 나에게도 낯설었다. 사실 그동안 나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설거지를 하면 도와준 것, 분리수거를 하면 도와준 것, 무거운 짐을 들면 도와준 것. 그러나 집은 누구 한 사람의 사업장이 아니고, 가족은 누구 한 사람의 관리자와 보조자가 아니다. 함께 사는 공간이라면 함께 유지해야 한다.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어야 한다.

그날 나는 반찬통을 닦고, 식탁을 정리하고, 분리수거를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어떤 뚜껑이 어떤 통과 맞는지 몰라 한참을 뒤적였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묶는 손도 어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워졌다. 어머니가 앉아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짧은 순간이 내게는 큰 장면처럼 남았다. 집안일을 조금 나누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숨을 돌릴 시간이 생겼다.

그 이후로 나는 생활 속에서 작은 규칙을 만들었다. 집에 가면 먼저 싱크대부터 본다. 먹은 그릇은 바로 씻는다. 주말에는 세탁기를 돌리고, 마른 빨래를 갠다. 반찬이 떨어지면 필요한 것을 묻고 장을 본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도 음식을 먹고 앉아 있기보다 상을 치우는 일부터 함께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반복하니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지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양성평등은 거창한 선언보다 습관에 가까웠다. 말로 외치는 가치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야 하는 태도였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뒤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만 정리 업무가 몰리는 순간, 행사 준비를 할 때 세심한 챙김이 특정한 사람의 몫처럼 여겨지는 순간, 커피를 준비하거나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는 일이 능력과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배

정되는 순간이 있었다. 예전 같으면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을 일들이다. 그러나 집에서 반찬통의 무게를 알아차린 뒤로는 회사 안의 작은 불균형도 그냥 보이지 않았다. 나는 회의가 끝나면 먼저 묻기 시작했다. “정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자료 취합은 나눠서 하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역할을 돌아가면서 정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용감한 말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세상을 단번에 바꾸는 말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누군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 함께 나누어야 할 일로 바뀌었다. 업무 능력은 성별과 관계없이 평가받아야 하고, 배려 역시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공유되었다. 나는 그 과정에서 양성평등이 누군가를 특별히 우대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시간을 공정하게 존중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존중은 말투에서도 시작된다. “여자라서 꼼꼼하다”, “남자니까 힘든 일은 해야지”, “그런 건 원래 엄마들이 잘한다”, “남자는 원래 표현을 못 한다” 같은 말들은 농담처럼 지나가지만, 사실은 사람을 좁은 방 안에 가두는 말이다. 꼼꼼함은 성별의 결과가 아니라 태도의 결과이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능력도 성별이 아니라 상황과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돌봄은 여성의 본능이 아니고, 표현은 남성에게 금지된 언어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나는 아직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는 날도 있고, 무심코 익숙한 표현을 쓰다가 스스로 멈춰서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양성평등은 완벽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알아차린 사람이 계속 실천하는 일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공평하게 행동하려는 마음, 내가 편한 만큼 누군가가 더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태도, 당연하다고 여겼던 역할을 다시 질문하는 용기. 그런 작은 실천들이 일상을 바꾼다.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한 생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저녁 식사 후 한 사람이 말없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도 함께 일어나는 것. 누군가의 피곤을 성격이나 역할로 넘기지 않고 실제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 “도와줄게” 라는 말 대신 “같이 하자” 라고 말하는 것.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보이게 만들고, 가정에서 익숙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서로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언젠가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요즘은 네가 알아서 하니까 편하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내게는 조금 미안한 문장으로 남았다. 원래부터 함께했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늦게 알아차렸다고 해서 멈출 이유는 없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바꾸면 된다. 평등은 어느 날 완성되는 결과가 아니라, 매일 다시 선택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반찬통은 여전히 우리 집 냉장고에 놓여 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나는 그 반찬통을 그냥 열어 보지 않는다.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담았는지, 누가 치울 것인지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 손으로 하나라도 더 옮기려 한다.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 작은 움직임 안에 양성평등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 있다고 믿는다. 공평한 사회는 멀리 있는 제도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물론 제도와 정책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을 가지려면, 식탁과 사무실과 버스 안과 회의실에서도 같은 마음이 자라야 한다. 내가 먹은 그릇을 내가 씻는 일, 함께 만든 공간을 함께 돌보는 일, 누군가의 역할을 성별로 정하지 않는 일, 고마움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나누는 일. 그런 하루들이 모여 사회의 표정을 바꾼다. 나는 오늘도 퇴근하면 집으로 간다. 아마 식탁 위에는 반찬통이 있을 것이고, 싱크대에는 씻어야 할 그릇이 있을 것이다. 예전의 나라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방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선행이 아니라 당연한 몫이라는 것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손을 씻고, 식탁을 본다. 그리고 말한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니, 같이 해요.”

나의 양성평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반찬통 하나를 함께 닦는 일에서.

누군가의 하루를 혼자 두지 않는 마음에서. 그리고 서로의 삶을 같은 무게로 존중하려는 아주 평범하지만 분명한 실천에서.